

No. 2013-10

# 일본 경제 동향

(Japan Weekly Economic Digest)

2013. 03. 04

- ① 일본경제지표
- ② 주간경제이슈  
: TPP를 중심으로 마일 정상회담 개최
- ③ 경제정책동향
- ④ 일본기업동향
- ⑤ 한국관련워치

## 1 일본경제지표

### □ 주요 경제지표

- 2012년 4/4분기 GDP성장률은 ▲0.4%로 3/4분기보다 마이너스 폭이 축소되었고, 연간으로는 1.9% 기록
- 2012년 무역수지가 사상 최대인 7조엔 적자를 기록한 데 이어, 2013년 1월에는 월간으로 사상 최대인 1.6조엔 적자를 기록
  - \* 2012년 對한국 무역수지 흑자는 21천억엔에서 16.7천억엔으로 축소
- 2012년 해외직접투자는 對세계, 對한국 모두 2011년보다 증가
- 2012년 경상수지는 4.7조엔으로 2011년보다 흑자폭이 대폭 축소
- 2013년 2월 평균 엔/달러 환율은 달러당 93.2엔, 3월4일 기준 93.6엔

구분	2011	2012	2012						2013	
			7월	8월	9월	10월	11월	12월	1월	2월
실질GDP증가율(연율,%)	0.3	(1.9)	▲3.5			▲0.4			-	-
수 출(천억엔)	653	(637)	53	50	54	51	50	53	48	-
수 입(천억엔)	697	(707)	58	58	59	57	59	59	64	-
對한국 수출	52.1	(49.1)	3.96	3.85	3.98	3.94	3.93	4.35	4.01	-
對한국 수입	32.9	(32.4)	2.78	2.44	2.42	2.70	2.82	2.84	3.12	-
직접투자(억달러)	(1,157)	(1,223)	287			339			-	-
對한국 투자	(24)	(40)	4.9			9.4			-	-
소비자물가(%)	0.0	-	▲0.2	0.2	0.2	0.0	▲0.3	▲0.1	-	-
실업율(%)	4.5	-	4.3	4.2	4.2	4.2	4.1	4.2	-	-
경상수지(천억엔)	76.2	(47)	6.3	4.5	5	3.8	▲2.2	▲2.6	-	-
엔화 對미달러	79.1	-	79	78.7	78.2	79	80.9	83.6	89.2	93.2
환율 對원화	(1,391)	(1,413)	1,446	1,438	1,439	1,401	1,344	1,288	1,197	-
외환준비고(기말, 천억달러)	12.9	-	12.7	12.7	12.8	12.7	12.7	12.7	12.7	-
은행대출금리(%)	1.48	-	1.40	1.40	1.38	1.38	1.38	1.36	-	-

주1) ( )는 역년(1~12월)기준

2) 소비자물가, 실업률, 환율, 대출 금리는 기간평균

자료: 일본경제신문, 재무성, 한국은행

### □ 주요 연구보고서

- 『자연에너지 세계백서』 환경에너지정책연구소, 2월26일
  - \*출처:<http://www.isep.or.jp/images/library/GSR2012jp.pdf>
- 『자동차산업에 있어서 한국 부품 서플라이어의 변화』 일본정책투자연구소, 2월27일
  - \*출처:[http://www.dbj.jp/pdf/investigate/mo\\_report/no187.pdf](http://www.dbj.jp/pdf/investigate/mo_report/no187.pdf)

## ② 주간경제이슈 : TPP를 중심으로 미·일 정상회담 개최

### □ 미·일 동맹 강화

- 22일(한국시간 23일) 워싱턴에서 美日정상회담이 개최. 이번 정상회담은 글로벌 경기침체와 동북아 지역의 긴장 악화 등 세계적인 경제·정치적 리스크 하에서, 미국으로서는 오바마 대통령의 집권 2기, 일본으로서는 아베 신정권 출범 이후 처음 갖는 양국 정상회담이라는 점에서 주목 받음
- 정상회담에서 많은 현안들이 논의되었는데, 회담 직후 아베 총리는 서로 매우 뜻있는 대화를 주고받은 회담이었다고 소회를 밝히는 동시에, 美日간 강한 동맹 관계가 완전히 부활되었다고 과시

### □ 정상회담의 포인트

- 정상회담의 중요한 포인트는 TPP, 美日동맹, 주일 미군재편, 북한 핵미사일, 中日관계, 에너지 문제 등이었는데, 이중 TPP는 공동성명으로 발표될 만큼 중요한 사안이었음

#### 〈美日 정상회담의 포인트〉

TPP	- 공동설명 발표 : 모든 품목에 대한 관세철폐를 전제로 하지 않음을 확인
미·일 동맹	- 미·일 동맹 강화에 의견 일치 - 아베총리가 방위비 증액, 집단적 자위권 해석, 미·일 가이드라인 재검토 등에 대해 설명 - 우주·사이버 분야에서 포괄적 대화 개시
주일 미군재편	- 후텐마 미군기지 이전, 카데나 공군기지 남쪽 토지·시설반환계획의 조기진전에 일치
북한 핵·미사일 개발	- 북한의 추가제제 등에 관한 미·일 협력 - 탄도미사일 방위 대응을 위한 이동식 조기 경계 레이더의 추가 배치방침 확인
중·일 관계	- 아베총리가 센카구도 관련, 중국에 냉정하게 대처할 방침을 설명
에너지 문제	- 아베총리가 셰일가스의 對일 수출에 관한 조기 확인 요청 - 민주당 前 정권의 2030년대 원전제로방침을 재검토

자료 일본경제신문

### □ 민감 부문에 대한 관세철폐 예외적용 가능성

- 아베 총리는 미국으로부터 민감 부문(sensitive sector)에 대한 관세철폐 예외 적용 가능성을 열어두고 TPP 교섭에 참가함으로써, TPP 관련 공약 준수와 함께, 일본 국내 반대론자들의 압력을 완화시킬 수 있게 되었다는 점에서 높은 점수를 얻었다고 볼 수 있음

- TPP 관련 공동성명 내용 중 다음 2가지가 핵심사항으로 일본 측이 이번 미일 정상회담의 최대 성과로 삼기 위해 미국 측과 물밑 절충을 한 결과임
  - 첫째, ‘일방적으로 모든 품목의 관세를 철폐토록 미리 약속하기로 요구하는 것은 아니다’ 는 내용으로 이는 동맹 강화를 위해 노력하는 아베 총리에게 오바마 대통령이 성명을 발표함으로써 배려를 해 준 것이라는 평가
  - 둘째, ‘일본은 농산물 분야에 일정량의 민감 품목(쌀과 설탕), 미국은 공산품 분야에 일정량의 민감 품목(자동차) 등, 양국 모두 2국간 민감 품목이 존재한다’ 고 구체적으로 명기한 것임

## □ 일본의 TPP 참가는 중국견제 효과도

- 미국과 일본이 TPP에 참가함으로써 중국을 견제하는 효과도 크다는 지적
  - 아태 지역의 발전과 룰 제정을 美日이 주도함으로써 중국에 대항 한다는 것임
  - TPP 문제가 전향적으로 결론을 맺게 된 배경에는 넓은 의미에서의 안전 보장에 도움이 되게끔 하려는 의도도 있음

## □ TPP 참가결정은 빠르면 6월, 실제교섭은 10월에

- 일본의 TPP교섭에 참가하기 위해서는 미국정부의 협의를 거쳐 의회의 승낙을 얻을 필요가 있음
  - 美 의회에 통고 후 교섭에 들어가기까지 90일이 소요되어 일본이 정식으로 참가결정을 내리게 되는 것은 빨라도 6월, 실제 교섭 참가는 10월부터 임

## □ 일본의 TPP 대책

- TPP참가를 위한 농업대책은 저가 수입품의 유입으로 인한 타격에 대비한 보조금 및 진흥책, 세제상 우대 등이 예상
  - 자민당은 농가에 대한 소득보상 재검토 작업을 추진하고 있어, TPP의 영향을 감안한 지원책을 강구한다는 계획
- 미국은 일본에 승용차(관세율 2.5%)와 트럭(관세율 25%)의 관세철폐 유예를 요구할 것으로 보임
  - 작년 발효된 한미 FTA에서는 5~10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없애는 조치를 담았으며 일본에게는 더 한층 완만한 관세철폐를 요구하고 있음
- 비관세장벽의 재검토도 크고 중요한 테마임
  - 양국 정부는 TPP 교섭과 병행하여, 자동차분야의 시장개방에 대해서도 논의할 예정인데, 미국자동차의 인증절차 완하나 경자동차의 세제상 우대조치의 재검토 안전기준 등 10개 분야에서 양측의 요구를 조정할 예정

### ③ 경제정책동향

#### □ 해외투자수익 증가에도 불구하고, 공동화방지를 위한 일본 내 환류는 감소

- 일본기업들의 해외직접투자 증가되어 작년 해외직접투자 수익은 4조 2,000억엔으로 과거 최고를 갱신
  - 그러나 직접투자수익을 투자 잔고로 나눈 수익률은 5%로 여전히 7~8%대의 미국과 영국에 비하면 낮은 편임
- 이는 일본기업들이 해외에서 벌어들인 수익을 일본 국내로 송금하기 보다는 현지 및 다른 국가에 재투자하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임
  - 현지법인들의 내부 유보액은 약 2조엔으로 4년 만에 높은 수준을 기록, 해외수익을 국내에 환류 시키는 송금액은 오히려 줄어들고 있음
- 인구감소에 따른 일본 국내시장의 축소 요인 등이 가세함에 따라, 기업들이 무역에서 투자로 전환하려는 움직임이 향후에도 지속될 것으로 전망
  - 제조업에서는 해외직접투자가 확대되고 있으나, 비제조업에서는 부진
- 제조업의 해외투자가 확대하게 되면 국내 고용 및 생산거점이 감소하는 공동화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나, 비제조업 분야에서는 국내 거점을 폐쇄하지 않기 때문에 공동화로 이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
- 이에 따라 공동화방지대책도 기업들로 하여금 대내외적으로 균형 있는 투자행동을 촉진시킬 수 있을 것인가에 초점이 모아지고 있음
  - 직접투자로 벌어들인 수익으로 해외거점을 확대하면서 일부를 일본 국내에 환류 시켜 연구개발 등 고부가가치 거점을 유지하는데 주안점을 둠
  - 일본정부가 1월 발표한 긴급경제대책에서는 해외사업을 수행하는 기업에게 출자하는 민관펀드를 설립키로 함
  - 일본은행은 저리대출제도를 도입, 기업의 해외진출을 지원할 예정이며, 일본 정부는 연구개발에 대한 감세 등 국내 기초기술도 육성할 방침임

## 4 일본기업동향

### □ 태양전지 소재업체들, 중국과의 가격경쟁 부담으로 사업축소

- 일본의 태양전지 소재업체들이 태양전지사업을 대폭 축소
  - JX금속 등 3개사가 주요 소재인 실리콘의 공동사업을 해산, 130억엔의 특별 손실을 계상하는가 하면, 토쿠야마도 실리콘의 일본 내 생산능력을 1/3정도로 축소
  - \* JX금속과 동방티타늄, 칫소의 사업자회사 JNC가 공동출자한 신일본솔라실리콘을 2014년 6월 이후 해산
- 세계 태양전지시장이 급속히 확대되고는 있으나, 중국 업체 등의 증산으로 가격경쟁이 격화되어 수익을 확보하기가 어려워지고 있어 일본 업체들이 고기능품의 강화 등으로 대응을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
- 유럽태양광발전산업협회(EPIA)의 조사에 따르면, 세계 태양광발전능력은 2012년 말에 전년대비 40% 증가한 1억kw대를 돌파, 고성장이 예상
  - 일본도 작년 7월에 도입된 재생가능에너지의 전량매입제도에 힘입어 2016년까지 2012년 대비 2.5배인 500만kw를 넘을 것으로 예측
- 그러나 시장 확대 속도보다도 빠른 속도로 소재 공급능력이 증가하고 있어, 비교적 규모가 작은 일본 업체들의 수익이 악화되고 있음
  - 실리콘 분야는 2010년부터 중국 업체들의 참여하여 실리콘의 가격이 크게 하락
- 태양전지패널용 유리분야에서도 중국기업들의 참여로 시황이 침체, 수익 확보가 어려운 상황
  - 아사히초자는 생산능력 축소, 일본판초자는 판매량 감소에 대응한 주력거점의 이전(베트남), 동양초자는 증산투자 동결 등으로 각각 대응
- 태양전지는 중국의 전지 및 소재 업체들이 기술력을 높여 수출을 확대
  - 실리콘의 전 세계 공급능력은 2013년도에 중국 업체들의 증산으로 약 45만톤으로 증가한 한편, 수요는 20만톤에 그칠 전망
  - 유리 등을 포함하여 수급 갭이 매우 크고, 채산성을 확보하기가 어려워지기 때문에 일본 소재업체들의 잇따른 철수가능성이 점쳐지고 있음

## 5 한국관련위치

### □ 한국의 중견 자동차부품업체들, 공동으로 일본 진출

- 국내 중견 자동차부품생산업체 8개사가 5월, 일본에서 공동 영업거점을 나고야시에 설립할 예정
  - KOTRA의 알선으로 미국과 독일에 이어 일본에서는 첫 시도로 원고에도 불구하고 가격경쟁력은 높아 도요타자동차 등과의 거래를 목표로 하고 있음.
  - 이에 따라 철강 외에도, 자동차부품을 둘러싼 韓日간 경쟁이 치열해질 전망
- 조명 등 내장품 및 스위치류를 생산하는 기업들이 진출할 예정이며, 부산지역에 공장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임
  - 영업 및 기술담당자들이 일본에 상주, 일본 업체의 요망에 신속하게 대응
  - 환율 및 수송비를 감안하더라도 일본의 부품업체보다 20~30% 낮은 가격으로 납품할 수 있다고 함
- 나고야를 중심으로 도요타나 혼다 등 일본 자동차업체나 계열 부품업체들과의 거래 개시를 염두에 두고 있음
  - 일본 진출 기업들은 국내에서는 현대자동차 등과 거래를 하고 있는데, 원고로 수출전망이 좋지 않을 경우에 대비한 해외시장 개척의 일환

### □ 한국산 자동차부품 수입 급증

- 일본의 한국산 자동차부품 수입이 급증하여 韓日간 자동차부품의 무역수지가 균형을 맞추어가고 있음
  - 원저와 품질이 향상되어 일본의 對한국 자동차부품 수입은 2012년 486억엔으로 3년 연속 증가
- 일본정책투자은행의 조사에 의하면, 일본의 對한 수출경쟁력을 나타내는 무역특화지수가 2012년에 0.08로 전년의 0.36에서 대폭 저하
  - \* 일본의 對한국 무역특화지수 : 對한국 순수출액(수출-수입)을 수출+수입 나눈 값으로 플러스 1에 가까울수록 수출경쟁력이 높고, 마이너스에 가까울수록 수출경쟁력이 낮음
- 자동차용 조명기기와 클러치 등의 무역특화지수가 마이너스로 되고 있음
  - 최근 엔저·원고 상황에서도 일본의 부품메이커들이 한국의 거점에서 일본 국내 완성차메이커들에게 부품을 납품하는 사례도 늘고 있어, 당분간 이와 같은 추세가 바뀌지는 않을 전망이다